

'21. 8. 20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페이스북, 탈레반 테러단체 지정 및 관련 콘텐츠 삭제

- 8.17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탈레반을 테러단체로 지정, △ 同 조직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콘텐츠 금지 △ 自社 SNS 플랫폼(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)에서 관련 내용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발표

* 탈레반은 그동안 페이스북의 인스턴트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을 적극 이용

○ 美 국토안보부, 9.11 테러 20주년 계기 테러 경고

- 美 국토안보부(DHS)는 다음 달 9.11 테러 20주년을 앞둔 가운데 “9.11 20주년과 종교적 기념일 등이 해외 테러조직에 테러와 폭력 행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”며 자국 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

* 최근 알카에다가 4년만에 영문판 인스파이어 잡지를 발간했는데, 이는 미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평가

유 럽

○ 獨 언론, 5억弗 이상의 ‘하마스’ 비밀 해외 분산투자 의혹 주장

- 8.11 獨 언론 ‘Die Welt’는 이슬람 무장단체 ‘하마스’의 ‘17~’18년간 금융정보를 입수, 同 조직이 중동·북아프리카의 40여개 기업 지분 등 총 3억3,800만여弗(현재가 5억弗 이상)을 비밀리에 분산투자 했다고 보도

- 英 전문가, '비자발적 독신 남성'을 잠재적 테러 위협 요소로 지목
 - 8.12 영국에서 여성 혐오성향 남성이 5명을 살해 후 자살한 것에 대해 '비자발적 독신'(인셀, incel) 남성들을 중심으로 범행 지지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추가 유사 테러 가능성 우려
 - * 사법당국은 올해초 여성대상 범죄를 위해 온라인에서 폭탄제조법 자료를 구매한 혐의로 케임브리지大 졸업생을 체포

아 · 태평양

- 법원, 駐韓 佛대사관 협박전단 게재 외국인 벌금 선고 유예
 - 8.12 서울서부지법은 '20.11월 駐韓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부착하여 외국사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
 - * 지난 5월,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
- 외교부, 駐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·교민 전원 철수조치 완료
 - 8.17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대사관 공관원 3명과 현지 교민 1명이 17일(KST 09:00)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으며, 중동지역 제3국으로 이동중이라고 발표
 - * 전날 출국을 시도했으나, 탈레반을 피해 출국하려는 아프간인 수천명이 카불 공항 활주로에 운집하며 미국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탈출 계획 무산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대테러작전으로 '보코하람' 수백명 항복·철수
 - 8.10 「온예마 은와추크우」 나이지리아軍 대변인은 자국 북동부지역에서 대테러작전을 전개해 최고사령관 2명 포함, 355명의 보코하람이 무기를 내려놓고 철수했다고 발표
 - * 보코하람 수장 「세카우」 사망(5.18) 이후 보코하람 투항 지속
- UN안보리, 西아프리카 및 기니灣 등 테러 상황 우려 표명
 - 8.17 UN안보리는 최근 西아프리카와 사헬 지역 내 민간인과 지역·국가기관 대표, 정부군, UN軍 등에 대한 테러·위협 증가와 기니灣 해적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적·지역적 대응 노력 촉구

터키, 결혼식장 겨냥 자살 폭탄테러

- '16.8.20 터키 남동부 시리아 접경지로 난민과 테러세력이 밀집된 가지안테프市에 소재한 야외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69명 부상
- 사건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지만, 일각에서는 그간 ISIS와 '쿠르드노동자黨(PKK)'의 공격이 빈발했던 점으로 미루어 同 테러 역시 兩 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- 반면, 터키內 쿠르드계 정당 '인민민주黨(HDP)'은 테러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"이번 사건은 自黨 당원이 관계된 예식장에서 발생했다"며 쿠르드族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한편, ISIS 소행 가능성 제기
- 이런 가운데, 터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PKK보다는 ISIS가 이번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 -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은 "이번 사건은 ISIS의 소행으로 보인다"고 언급
 - '정의개발黨'(AKP) 등 정치권도 ISIS를 유력한 테러 주체로 지목
 - * 전문가들 역시 △ 사건 발생지가 쿠르드族 밀집거주지 △ 對정부 무장투쟁에 집중해온 PKK의 그간 주공격 대상이 정부였던 점을 들어 ISIS를 테러 주범으로 의심
- 한편, 사건 직후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이 자살 폭탄테러범에 대해 "ISIS 급진사상에 경도된 10대 초반의 어린이"로 설명했으나 이후 총리가 나서 "사건 배후 조직이나 주체에 대해 확인된바 없다"고 반복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쿠르드노동자黨(PKK) >

- (목 표) 터키 남동부 지역에 쿠르드族 독립국가 건설 / 극좌·민족분리주의('78. 11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EU·호주('05.12)
- (조직규모) 약 4,000~5,000명 추정('19.10, 美 국무부)
- (연계세력) 쿠르드 인민 방어전선(HPG), 인민수비대(YPG) *YPG는 시리아內 쿠르드族 민병대
- (활동지역) 터키 全域 및 이라크 북부, 시리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터키 정부와 집권당 사무소 및 軍警 공격
 - *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 우호분위기 조성 및 서방권의 비난 등을 우려해 외국인·민간인 보다 軍警 등 치안전력 대상 공격에 집중